

쪽방촌 사람들의

희망찾기 (5) 다시 행복을 설계하는 사람들 “제일 필요한 건 인격체로 봐주는 시선”



주택 마련은 여전히 서민의 꿈이다. 특히, 한평생 3.3 (1평) 남짓한 조금만 방에서 다리 한번 쭉 못 펴보고, 언제 쫓겨나 노숙으로 나설지 하루하루 걱정속에 살아가는 쪽방거주민에게 내 집은 희망이다.

두명의 쪽방촌 사람을 만났다. 이들은 대한주택공사가 ‘수요자 중심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쪽방거주자, 소년소녀가장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해 시행하는 임대주택사업의 극소수 수혜자들이다. 이들은 내 집에서 자활의 꿈을 펼치고 있었다.

이들은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같은 인간으로 인격체로 봐주는 시선”이라며 “외로운 이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고 꿈을 함께 얘기해줄 수 있는 이웃”이라

고 했다.

#그리운 ‘가족’, 만나고 싶었다

23일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A(46)씨를 대구의 한 거리에서 만났다. 그의 손에 들린 빗자루는 거리의 쓰레기들을 쓰레받이에 쓸어 담고 있다.

그는 쪽방촌 사람들 중 운이 좋다. 구청 공무원의 배려로 임시직이지만 직장이 생겼고, 작년 7월엔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해 난생 처음 내집이 생겼다. 그의 집은 33㎡(10평) 규모인 10년 장기임대주택이다.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8만7천원이다. 일정한 주거지 없이 일용직을 전전했던 그는 IMF(외환위기)로 인해 일감이 없어지자 노숙자로 전락했다. 겨울엔 노숙인 쉼터에서 날이 풀리면 다시 노숙자로 10년 넘게 반복된 삶을 살았다. 가족과도 연락을 끊었다. 하루 몇천원이라도 생기면 그날 운수는 대통이다.

그는 “몸이 멀쩡한 사람이 공사현장이라도 가지 할일이 없어 노숙이야라고 누구는 쉽게 말하지만 일할 사람들이 널려있는 마당에 우리같은 사람들에겐 일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는다”며 함께했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사회적 관심을 바랐다.

“알코올에 찌든 사람은 거의 그 생활에서 헤어나지 못한다고 보면 된다. 마음은 있지만 몸이 안 따라 준다. 이들에게 일시적인 공공근로라도 계속 주어져 스스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배려가 필요하다.”

그는 올 구정때 모친과 동생을 만났다. 모친에겐 용돈도 줬다. 또 ‘가족’을 말하며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

“혼자 밥을 먹다 보면 한순간 울컥한 적이 한두번이 아니다. 첫 직장생활을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으려 가족을 찾게 되더라.”

조만간 그는 실직자가 된다. 그는 간신히 잡은 희망이란 끈을 놓치고 싶지 않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사는 게 바람으로 조만간 환경미화원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라며 “또 여건이 허락된다면 나보다 어려운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도우며 살고 싶다.”

#두번째로 통장을 만든 날

임대주택에서 만난 B(38)씨는 과거 여인숙과 PC방을 전전하며 살았다.

그는 19살 나이에 고향 경남 밀양을 떠나 대구에서 3D업종에 종사하며 고생고생 해서 번 돈을 게임방에 투자했다 다 날렸다.

망연자실, 그는 약 5년간 PC방에서 기거하는 등 10년간 반 노숙자로 지냈다. 생계비는 게임아이템 등을 팔아 생활했다한다.

거주지가 일정하지 않다보니 주민등록도 말소됐다.

그는 “당시 대인기피증이 생겼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등 거의 자포자기 상태였다”고 회상했다.

그런 그에게 쪽방상담소에서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다. 말소된 주민등록을 살렸고, 작년 4월부터 3개월간 공공근로를 한 것을 계기로 1년간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그는 생애 두번째로 통장을 만들었고, 작년 12월 월세 11만원인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했다. 입주날 그는 “눈치 없이 설 곳이 이제 생겼구나”며 좋아했다.

현재 그는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위해 운전면허를 딸 계획도 세웠다. 내집이 생기면서 이루고 싶은 목표가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는 것이다. 그의 작은 소망은 안정된 직장을 얻어 가족을 떼뜻하게 만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남들처럼 평범하게 땀흘려 일하고 주어진 환경에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며 평소 알고지낸 쪽방촌이나 노숙인들이 찾아올때면 어김없이 자신의 자리를 양보한다.

고정일기자 kji@idaegu.com